

이천시의회 의정소식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형의회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이천시의회 공식채널

이천시의회는 유튜브 및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다채로운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회



C O N T E N T S

발간사 3

(특집) 인터뷰 4

- 박명서 의장
- 김재현 부의장
-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
-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

소통 간담회 14

- 지역 물품 우선구매 간담회

의정 뉴스 21

회기 운영 30

- 제251회 임시회
- 제252회 임시회
- 제253회 임시회
- 의안 처리

5분 자유발언 45

- 임진모 의원
- 서학원 의원
- 박준하 의원
- 박노희 의원
- 송옥란 의원
- 김재현 의원
- 김재국 의원

특별한 만남 60

- 안동시 산불 피해 성금 기탁
- 제1기 의정모니터단 모집

의회 안내 63

- 주민조례청구
- 하반기 회기 일정
- 방청/견학 문의 및 신청

이천의 미래 이천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제2025-1호

- 발행일 : 2025년 6월
- 발행인 : 이천시의회 의장
- 제작기간 : 2025. 1. 1. ~ 2025. 4. 30.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의회)
- 전화 : 031) 644-2532
- 이메일 : council.icheon@gmail.com
- 홈페이지 : <https://council.icheon.go.kr>

발간사

**행정사무감사 미완료 과제 조속한 해결
정책적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주요 업무 선제적 대응
전년도 예산,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결산 검사 꼼꼼히 점검**



꽃향기 가득한 오늘, 우리 이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고 지역경제와 시민분들의 살림살이도 꽃처럼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그간 펼쳐온 의정활동의 열매가 영그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래도시 건설과 일상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월 28일 교육부 장관의 동의로 경기형 과학고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가 경기 동부권 최초로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첨단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천시의 교육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고가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는 2월부터 세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올해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 업무보고와 지난해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 경과를 청취했습니다. 시의 정책과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더 나은 행정이 실현되도록 점검하는 것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천시의회는 미완료된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과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번 4월에는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과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년에 이천시가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해 이천시가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기정예산 대비 2,248억여 원을 증액해 민생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에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형의회'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025. 4. 30.

이천시의회 의장 박명서

special
INTERVIEW

박명서 의장은 지난 3월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행복 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별인터뷰를 통해 박명서 의장의 올해 의정계획과 주요 추진 사업, 집행부와의 관계, 시민과의 소통 철학은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지역상생의 길을 찾다

올해도 저는 먼저 민생경제부터 챙겨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늘고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인구도 늘고 지역도 활발해집니다.

이미 저는 지난 3월 14일 이천시와 상생하는 이천 기업을 만들기 위해 관내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여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천시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숙원사업 해결, 규제 개선 앞장

또한, 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사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 역시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최근 경기동부권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는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한강수계를 둘러싼 중첩규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팔당 상수원 권역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회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계속해서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경강선 부발역, 이천역, 신둔도예촌역 등 역세권 중심의 도시 개발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교통망 개선과 함께 상업적,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출산·육아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박명서 의장

발의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지역 단위로 확대되게끔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세원 확보의 다변화, 화장장 건립 과정 등을 차근차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천시의회는 23만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더욱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형회'라는 후반기 새로운 슬로건처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와의 '견제와 협력', 시민 우선의 의정활동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협력'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추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기구로서 '시민의 행복과 지역 사회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교육·교통 등 생활 밀접 분야에는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해 건전한 비판과 동시에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이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주기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민원인, 시민과의 소통에는 "상대성"과 "현장"이 중요

저는 각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상대성'을 시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싶지만, 상황과 주변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혼자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있는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후, 최대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가 없게,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들을 수 있게 다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선호합니다. 저번 3월에 실시한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시청, 시의회, 지역업체가 참여해 실시했습니다.

또한 소통의 변함없는 기본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것 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을 만나 뵙고 함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천시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며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여, 시민을 위한 맞춤형 의회로서의 행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는 경청

이천시의회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발판 삼아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힘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단소리, 쓴소리해 주신다면 적극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special
INTERVIEW



“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높여 줄 미디어센터
건립이 목표...

 김재현 부의장

Q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 인가요?

현재 저는 이천시에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면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센터 설립의 첫 번째 단계로, 안성시와 성남시의 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곳 모두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성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남시의 마을 미디어 사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천시에 잘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천시의 특성에 맞는 미디어센터가 설립된다면, 시민들에게 창의력과 예술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워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나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특히 저는 우리 삶의 귀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어르신들부터 미래의 동력인 아이들까지 세대 간 구분 없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나가자는 소신을 조례에 담아 발의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고된 땀과 깊은 경험이 오늘의 이천을 이끌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일군 삶의 터전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들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해 각 세대가 그 역할을 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의정 철학 또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하면 된다’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자 제 삶의 철학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은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더욱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pecial

INTERVIEW

“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심혈
사각지대 없는 이천시,
따뜻한 터전 이룰 것....”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Q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 인가요?

이천시민의 여러 이슈와 요구를 파악하고, 실행하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1차로 주어진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및 조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며 소신을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천시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각지대의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실행해 옮기고자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Q 발의하신 조례나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난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걱정 없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자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를 차례대로 발의해 사회적 약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이어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문을 더욱 넓혔습니다.

단순히 조례를 발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점검하는 한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의정 철학 또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저의 삶의 철학은 이천시의회 내부적으로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저는 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의 회운영위원장으로서 내부적으로 의원들과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여 당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합심을 통해, 보다 멀리 행복의 길로 꾸준히 걸어가는 데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는 이천시, 따뜻한 터전 이를 것”입니다. 따뜻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초심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special

INTERVIEW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환경오염 감소 위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구축

교육 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위한 지원사업 필요

기본에 충실, 초심 잃지 않고
지역주민의 목소리 경청할 것...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



Q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 인가요?

첫 번째,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은 이천시의 주요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육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돼지 약 393,000두, 젓소 약 23,900두, 한우(육우) 약 24,200두, 닭은 3백만여 마리로 대부분의 축종이 경기도 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축산업은 최근 육류 소비량 증가 및 사육 기술의 발전과 개량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료 등 자원의 고투입 대비 저생산성 사육구조와 축산악취 및 가축 질병, 농촌인력 부족 등은 농가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축산을 확대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천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축사를 한데 모으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동방역시설, 에너지화시설, 퇴액비 생산시설, 도축 및 육가공 시설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천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천시는 과학고 유치를 통해서 교육 인프라 확장 및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과학고는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이천시가 교육 특화 도시로 자리잡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학고와는 별도로 이천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학교 특색 교육활동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약 19억 원 정도를 학교별 특색 교육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로 체험, 문화·예술·체육 활동, 역사교육, 창의적 사고 배양 등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들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75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주로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공교육 지원 사업 부문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특색 교육활동도 중요합니다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성적향상을 원하는 학생들, 경제 사정으로 학원 등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또는 유명 학원 강사를 초빙한 통합 특강반 운영, 우수한 강의 콘텐츠와 교육 방송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발의하신 조례나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 니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입안으로 의회 운영 분야 10건, 자치행정 분야 7건, 산업건설 분야 6건으로 총 23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조례 중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참여와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청년들의 자아 탐색·진로 설정, 해외연수 지원 등 역량 개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자립 기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산업건설 분야에서 발의한 대표적인 조례로는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 관리에 필요한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 환경, 교통, 악성 민원 근절, 건강증진, 영유아 보육 등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발굴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 조례들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조례 제·개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Q 의정 철학 또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신념으로 항상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주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역할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경청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special

INTERVIEW

“**‘방위산업 육성’ 초선의원 시절부터 즐기치게 제안,
이천시 미래 먹거리로 반영해**

**경기국제공항 유치해
대한민국 물류 거점 도시로 변화 꾀해야**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의견,
돌담을 쌓는다는 일념으로 정진.**”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



Q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 인가요?

제가 초선의원 시절부터 줄기차게 제안해 온 정책 중 하나는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이천에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2024년도까지 시정질문을 거듭해 이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첨단방위산업 단지 조성 및 방위산업체 유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다행히 이천시는 첨단 미래도시를 향한 역점사업 중 하나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혀 제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경기국제공항을 이천에 유치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는 이천시 발전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부발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노선의 확장과 경기국제공항이 맞물리면 이천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물류 거점 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종 규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 시바빠 경기국제공항이 이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천시민의 저력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Q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나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의원이 된 직후에는 공공 급식이나 어린이, 청소년, 청년지원 조례를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부터는 모자 보건, 돌봄, 영유아 보육 등과 관련된 조례를 많이 발의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 농업과 농민 지원 조례라든지 축산업, 노동자 관련 조례도 다수 발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의한 조례로는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빈집이 늘거나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결국 인구증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천시의 인구 증가 시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저는 일상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Q 의정 철학 또는 삶의 좌우명이 있다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돌탑을 쌓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돌들을 주워 모아 큰 돌과 작은 돌을 서로 맞물려가며 쌓아야 돌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지듯이 중요한 정책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의견을 모아 돌탑을 쌓는다는 일념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시청-시의회-지역업체 참여한 지역 물품 우선구매 간담회



- ☞ 어려운 시기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서 경기 부양해야
- ☞ 수천 세대 들어서는 중리택지지구에 관내 5개 레미콘업체는 고작 20%만 납품
- ☞ 조례로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게 되어 있지만 타 시군 기업체와 차별성 없어
- ☞ 사업 설계부터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관내에 풀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지역업체와의 SOC사업 추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사업 발주부터 준공까지 세심한 지도 감독, 기업체는 양질의 품질 제공이 관건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천시청 실국 과장 18명, 지역 물품 사용자 단체 13명이 참석해 관내 지역 업체 물품 제조·구매와 공사·용역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사회와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월 14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에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개최됐습니다.

이천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이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은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해 왔으나 아직 기업들이 체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박명서 의장은 평소 관내 기업체 활성화와 물품 우선구매를 위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민관이 함께 참여한 실무적인 간담회를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판로지원 등 실무적인 논의와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약속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역 물품 우선구매 간담회

박명서 의장 저는 지역업체 우선, 지역 물품 우선구매를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나라가 어렵다 지역경제가 침체되었다 하면서 정작 타 지역업체에 발주를 주거나 이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역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과 예산배정에서부터 계약, 지도 감독까지 답변하실 수 있게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셨으니 애로사항이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해결이 안 되더라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체크해 두었다가 다음번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될 수 있게 논의할 예정이니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을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중 회장 (이천시기업인협의회) 경제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기업들도 설비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 때 국가가 나서서 경기부양을 했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시에서 인위적으로라도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건설경기를 부양하면 건설, 토목, 전기, 통신 등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심사 기준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가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만큼 공구별로 발주해 소기업까지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안중기 부회장 (이천시기업인협의회) 모가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안중기입니다. 지역업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제품을 만들어 활동하는 업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 최근 겪은 사례인데요. 조례에 따르면 지역업체에 7.5점 가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안성이나 광주업체가 들어와도 똑같은 7.5점을 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지역업체(이천지역)로 보고 있다는 얘 기입니다. 이천시에서 이천시 세수를 가지고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떻게 광역으로 봅니까? 지역이면 이천 으로 봐야죠. 수주가 안성시 업체로 가면 세수가 이천으로 들어옵니까? 이천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며칠을 조달청이고 행사부고 질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24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해 봤 더라고요. 지역 물품 우선구매라고. 지금 시청 국과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실무 진에서는 그걸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천 세수를 타 지역업체에 줍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모순점을 바로잡아서 이천 기입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부의장 저도 유독 이천만 광역으로 많이 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천지역만 가산점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신은순 회계과장 대체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광역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 또한 관내 입찰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산점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장 관내 입찰 방식이든 수의계약 방식이든 관내 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과장님께서서는 지역 가점 선택 사항 여부와 금액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사무총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천시협의회) 사업을 최초로 설계할 때부터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 해서 관내에 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 물품 우선구매 간담회



이종상 부회장 (이천시전문 건설업협회) 여태까지 사업을 해 오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관급공사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지만 개인 공사는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막노동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사 현장이 없어 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 때는 정부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관급공사를 발주했던 것처럼, 추경을 해서라도 건설경기를 부양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박명서 의장 추경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요, 도로 건설 쪽에 올해 얼마 정도를 풀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나성균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쪽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진행 중인 게 77개 노선에 전체 사업예산은 8,800억 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예산은 이월예산까지 1,100억 원입니다. 건설과 욕심으로는 400억 정도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의장 다음은 건축하고 측량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죠.

📍 곽희철 회장 (이천시 공간정보산업협회) 여주 공무원 하는 말이 “여주에도 설계사무소가 많은데 굳이 이천설계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이천시 공무원들도 이천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이천 업체를 이용한다는 원칙으로 발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민철 부회장 (이천시 건축사협회) 사무실은 이천에 두고 있지만, 모든 일을 서울에서 하는 건축사들이 꽤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재학 안전건설국장 건축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시에 없습니다. 건축사 협회와 경기도와 이천시가 논의해서 사례나 판례를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 임진관 전 연합회장 (이천시 건설기계연합회) 지역업체가 현장에 와서 일을 하면 당연히 지역업체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외부 업체가 들어오면 외부 장비를 투입합니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장비에 대해서는 지역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시에서 시행 업체에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온정을 부사장 (레미콘 단체)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레미콘 업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레미콘은 90분 내에 운반과 타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특성상 거리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역 물품 우선구매 간담회



수천 세대가 들어서는 중리택지지구 공동주택 건설에 외부 업체에서는 80%, 이천 관내 5개 업체는 다 합쳐도 고작 20% 납품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천지역에 있는 레미콘사는 타 지역으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 지자체장들은 나서서 타 지역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도 시장님이 타 지역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지난 2월 주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이천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시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관내 업체 물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나성균 건설과장 공공 건설은 관내 업체로 100% 납품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 공사는 광주 업체가 다수 포함된 게 사실입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 타 시군 사례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임진모 의원 저도 이럴 때일수록 관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가능하게 시가 보증을 서서 일시적이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시기상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 규모에 맞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지역 공사를 할 수 있게 신중히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노희 의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우리 시 물품을 구매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구요. 잘 시행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지역업체에서도 질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지금 하신 얘기들은 집행부에서 오신 국과장님들도 다들 공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적이 높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민간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줘서 참여를 유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제품 품질이 우수해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개선을 위해서 기술지원 컨설팅 등도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장 지역업체의 애로사항과 판로지원 방안이 여러모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천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와의 SOC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준공까지 공사 현장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도 감독으로 지역업체와 상생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체에서도 양질의 품질 제공으로 사용자가 이천 기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천시의회는 행정 사무감사와 조례 정비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간담회 개최와 연말 부서 총평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지역 물품구매가 성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지역 물품 우선구매 간담회





의정뉴스

#01 현충탑 참배 및 시무식으로 을사년 의정활동 시작

#02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 전달한 새해 첫 봉사활동

#03 설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04 이천시의회,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교 체육 유공 표창' 수상

#05 제131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06 임금님표 이천쌀, 풍년기원 전국 첫 모내기

#07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08 부패방지·청렴교육 실시... "청렴은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

#01

현충탑 참배 및 시무식으로 을사년 의정활동 시작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지난 1월 1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새해 첫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2025년 을사년의 새로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1월 2일에는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들과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시무식을 진행해 희망찬 2025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02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 전달한 새해 첫 봉사활동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1월 9일, 이천시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3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점심을 배식하고 새해 인사도 전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들으며 소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

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큰절로 그간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전년도에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와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등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03

설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이천시의회는 1월 20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특히, 위문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선정해 지역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방침을 실천했고, 이천쌀 소비 촉진

과 지역 농가의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박명서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04

이천시의회,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교 체육 유공 표창’ 수상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 5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체육 유공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천시의회와 이천시청, 도의원, 이천교육지원청은 공공 수영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특수전사령부와 707특수임무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군부대 수영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단독형 이동식 수영장 설치 예산 확보, 학교에 필요한 계약 지원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에도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2024년도 이천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은 특수전사령부 수영장에서 8개 학교, 단독형 이동식 수영장에서 10개 학교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존수영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 기관들은 학생 생존수영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학교들의 계약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특수전사령부, 가남스포츠클럽센터, 단독형 이동식 수영장, 사설 수영장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교육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이천시와 교육기관,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학생들의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5

제131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제131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2월 6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이천시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포함한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과 김경희 이천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논의된 안건으로는 ▲제13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 협의체 구성의 건 등 접수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시·군의 현안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례회의에 이어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대응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 협의체는 시·군별 시민리더로 이루어진 정책협의회와 상수원 권역규제 관련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실무협의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별도로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은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각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팔당 상수원 권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회복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전했습니다.



#06

임금님표 이천쌀, 풍년기원 전국 첫 모내기

탁월한 맛과 품질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천쌀이 지난 2월 13일 호법면 안평리 일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모내기가 진행됐습니다. 모내기 행사에는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경희 시장, 권혁준 호법농업협동조합장 등이 함께하며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호법면 안평리 일원에서 이른 모내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경기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한 하우스 수막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천시 대부분의 지역은 4월 초에 파종하고 5월에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이

번 모내기는 약 3개월 정도 앞서 시작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쌀의 명성은 그동안 지역 농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정성, 그리고 첨단 농업 기술의 결실이기도 하다”며 “이천쌀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재배 기술과 품질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이천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모내기한 품종은 국내 육성품종 중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조생종 ‘진광’으로 6월 중에 수확될 예정입니다.



#07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4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이천시의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앞서 시의회는 4월 3일 의장실에서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원종순 전직 공무원, 주동일 동원대학교 교수, 오상용 공인회계사, 최정훈 세무사 등 재정·회계 분야의 전문가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결산검사는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기관이 당초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면

밀히 검토하는 절차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15일 동안 이천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사용 내역, 재무제표, 채권·채무 결산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시의회는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08

부패방지·청렴교육 실시… “청렴은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

바람직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이 4월 29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됐으며 해당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이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박종성 강사가 맡아 진행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의 유형과 예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명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회기 운영

제251회 임시회

└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제252회 임시회

└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제253회 임시회

└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제251회 임시회

제251회 임시회는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2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채택됐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청 각 실과소의 202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해 시책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폈습니다.

또한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의해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및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진행됐고 의원들은 해당 계획이 지역 발전과 주민편의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김재현 의원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천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공무국외출장이 가능하도록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출장보고서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귀국 후 30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항목의 5번 심사기준을 기존 '일 최소 1개 기관'에서 '연수 중 최소 2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천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복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과 안전 전문인력 배치, 만약의 사고 발생 시 군 장병이 상해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진모 의원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게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교육훈련 중이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 또는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이천시의회 공무원이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 조치하도록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다. 일반적인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지급 제한 규정에 더하여, 의사진행 및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고, 의사진행 및 질서유지 방해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희
의원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장할 소지가 있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같은 법에서 익명신고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익명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사 방해 등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였고,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여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를 원활히 활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구제의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히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참여와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의미임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의사 표현이 서툴거나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혀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이 안정된 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하식
의원

효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효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세대 간의 단절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료호친 사상을 더욱 고취하고 효행 문화를 장려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 장려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하여 이천시에서도 매년 효행 장려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효행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장려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장이 지원하는 효행 장려 사업 종류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효의 달인 10월에 효행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효 사상이 더욱 확산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효행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
의원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251회 임시회

주요 내용으로는 일몰의 심의·결정, 의회에서의 일몰 권고 등에 대한 규정과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시장의 관리 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복무 군인,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아동관련 행사에 대한 감면율을 정비하여 올바른 체육문화 정착 및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복무 군인 및 아동관련 행사에 대하여 이천시민에 대한 주민등록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및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에서 18세까지의 사람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극대화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 화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이며 화훼 지원사업 및 시책에 대해 규정하였고, 생화 사용 촉진 및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우수 화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학원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철거 및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및 빈집 정비 지원,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빈집의 안전조치 및 빈집 정비 지원비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252회 임시회는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 진행됐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7건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채택되었습니다.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과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을 심사해 위탁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19일과 20일에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90건(완료 67건, 추진 중 17건, 장기검토 5건, 추진불가 1건)의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보고 시 제시된 사항에 대해 꼼꼼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진모 의원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의회위원장 직인을 한자에서 유래한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하여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직인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화장시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줄이고 새로운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시립 화장시설 건립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선진 화장시설 견학을 지원하여, 화장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정확한 이해를 돕는 등 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선진 화장시설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료, 교통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건립대상지 주민과 함께 대상지 인접 주민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재국
의원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집적회로 'IC' 칩을 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을 현행화하고 신분증 발급권자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학원
의원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김하식
의원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편향성과 차별, 오류 및 안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본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비롯해 시장의 책무,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본 계획과 정책이 공익성과 윤리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인공지능 산업 지원 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박노희
의원

이천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이천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예산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행사를 대상으로 재원별 예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행사 홍보물 제작 시에 표기 등 공개 의무와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예산 공개 표기 방법과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에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항을 신설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

제252회 임시회

르고, 연명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등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권 존중은 물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필요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현
의원

본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우대, 구매활동 촉진 등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박준하
의원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이천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를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개최하고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8일에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어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의됐습니다. 21일과 22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개최돼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부의된 안건 8건이 심의됐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248억여 원이 증액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요 필수경비 지출,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됐으며, 특히 교육(63억 원), 문화관광(304억 원), 환경(233억 원), 사회복지(158억 원), 농림해양수산(253억 원), 산업·중소기업(68억 원), 교통 및 물류(41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124억 원) 등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28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최해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천시의회는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미흡한 시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한 집행부 사업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원안가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계	1,593,729,636	100.00%	1,368,873,730	100.00%	224,855,906	16.43%
일반회계	1,363,441,145	85.55%	1,191,428,369	87.04%	172,012,776	14.44%
특별회계	230,288,491	14.45%	177,445,361	12.96%	52,843,130	29.78%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이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노희
의원

보은인사, 밀실인사 등의 폐해로 일부 출자·출연 기관의 장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갑질문제가 불거져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이천시 소속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회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인사청문 후 위원장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김재국
의원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은 이천시의회 규칙 및 규정과 이천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의 목적과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 관한 사항,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공포 번호, 공포 절차, 공포·발령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지만, 복잡한 진료 절차와 긴 대기 시간 등으로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조례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과 무관하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8시간, 연간 60시간 범위 내에서 병원 이동, 진료 대기, 처방전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에서 동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송옥란
의원

-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인 조례의 목적,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 의무를 규정해 이천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은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운용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실적 공개, 재정건전화 위원회 설치와 역할 등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 포상, 교육훈련 등 운영상의 실질적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낭비 예방과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 이천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서학원
의원

-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이천시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하식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일선 학교에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성격의 사업들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출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진모
의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을 확대하였고, 총괄부서를 지정해 실적관리와 간담회 개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우선구매를 촉진토록 하였으며, 시장이 이천시 관내에서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행하는 사업주체에게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사항과 사업주체의 지역상품 구매 노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재현
의원

최근 기후변화, 농촌 인구감소 등 농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스마트농업 관련 계획 수립, 육성사업 지원 및 스마트농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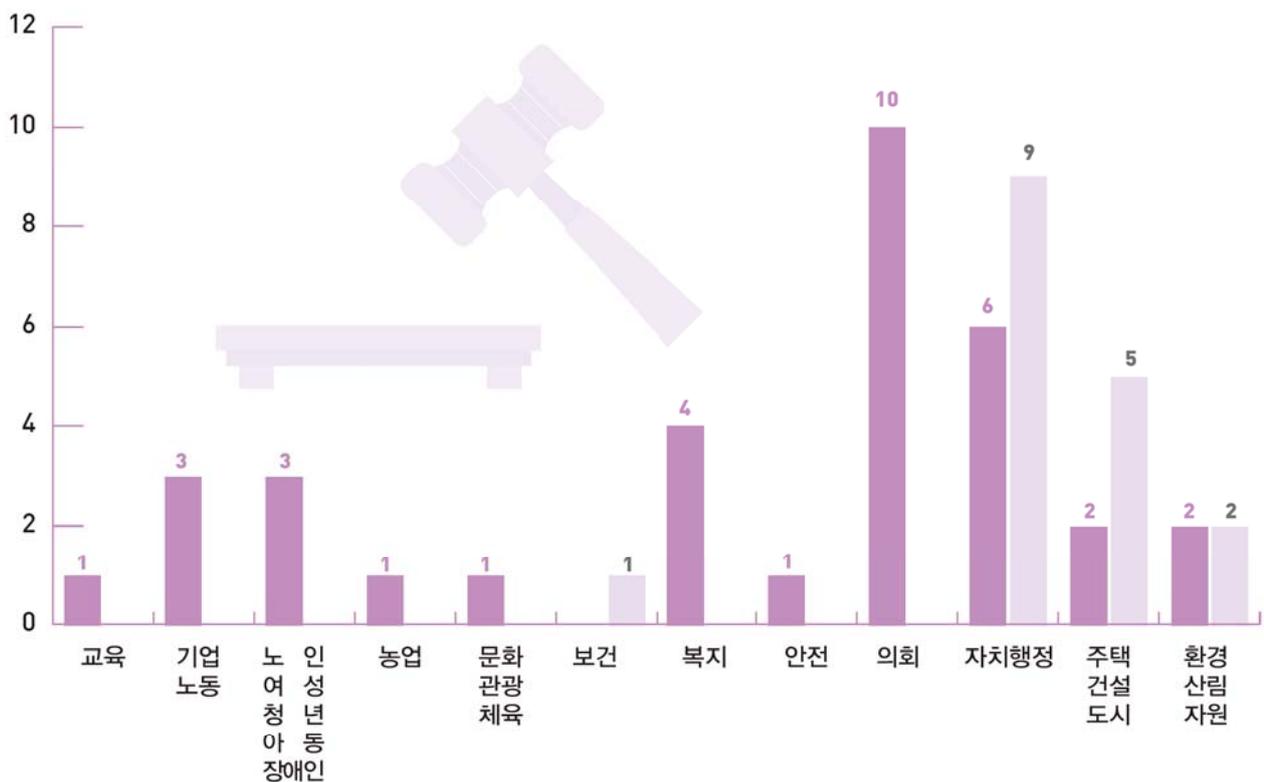
2025. 1. 1. ~ 4. 30.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보류	비고 (기타)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총계	82	77	76	0	0	0	1	0	5	
예산및결산	2	2	2	0	0	0	0	0	0	
중요동의	12	12	12	0	0	0	0	0	0	
조례안	소계	48	48	47	0	0	0	1	0	0
	의원	31	31	31	0	0	0	0	0	0
	위원회	0	0	0	0	0	0	0	0	0
	시장	17	17	16	0	0	0	1	0	0
동의안	8	8	8	0	0	0	0	0	0	
승인안	0	0	0	0	0	0	0	0	0	
결의안	2	2	2	0	0	0	0	0	0	
건의안	0	0	0	0	0	0	0	0	0	
규칙안	3	3	3	0	0	0	0	0	0	
의견청취	2	0	0	0	0	0	0	0	2	
청원	0	0	0	0	0	0	0	0	0	
기타 안건	5	2	2	0	0	0	0	0	3	

조례/규칙안 분야별 처리현황

■ 의원발의 ■ 이천시장 제출조례

2025. 1. 1. ~ 4. 30.





5분 자유발언

🎤 임진모 의원

🎤 서학원 의원

🎤 박준하 의원

🎤 박노희 의원

🎤 송옥란 의원

🎤 김재현 의원

🎤 김재국 의원





사업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초과 세입금과 예산 집행잔액 2022년 2,995억 원, 2023년 2,131억 원 발생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2025년은 시민을 위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시가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말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가 예산편성의 관행적 행태를 개선하고,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은 과소추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과다계상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로 연간 발생하는 수입 중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해당연도 사업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재원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를 필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 결과, 최근 4년간 연평균 예산 집행잔액이 2,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제외한 차액 즉 초과세입금이 2022년에는 864억 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52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864억 원, 2023년에는 524억 원을 해당연도 사업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최근 2년간 예산 집행잔액은 2022년 2,125억 원, 2023년 1,551억 원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09억, 예산절감액 2억 3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0억 5천, 낙찰차액 23

억 5천, 지출잔액 963억 6천, 예비비 442억 원입니다.

이 중, 단순 "지출잔액"만 보더라도 963억 원으로 전체 예산집행 잔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과 세입금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순세 계잉여금이 2022년에는 2,995억 원, 2023년에는 2,131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총규모 1조 4,452억 원의 각각 21.8%, 1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세입의 과소추계와 과다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을 지적하였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의 필요성과 징수가 확보된 세입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선8기 이천시는 역점사업으로 공원 및 주차장, 체육 시설 조성과 도로개설 등 이천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도로사업만 해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총 8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징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천시에는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으로 총 157개소나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세입예산에 누락되는 재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

 임진모 의원

성을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면 이러한 앞에서 언급한 현안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시의회는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 45억 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규모를 검토하였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입은 적게, 세출은 여유 있게 편성하려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과도한 부분을 바로 조정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경은 이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천시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3. 14.]

돼지, 소 등 주요 가축의 사육농가 경기도에서 이천이 가장 많아 축산악취 및 가축질병, 농촌인력 부족 농가경영에 큰 부담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조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_임진모 의원





경기국제공항 유치, 이천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

안녕하십니까! 이천시민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폭설로 안전사고 발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제설과 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이천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꿈이라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용역 결과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등 3개 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하여 이천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리적 이점과 K-반도체 벨트의 시너지입니다. 이천시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공항을 유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 항공 화물 수·출입을 활성화시켜 급증하는 인터넷 쇼핑물 항공 물류 수요를 이천시를 거점으로 처리토록 하여 이천시를 대한민국 물류 허브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물을 통한 물류 수요는 2065년까지 약 35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 물류, 관광, 서비스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여객 수요는 2035년부터 2065년까지 약 1,2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많은 관광객이 이천시를 찾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공항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약 6조 원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된다면 이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 발전 균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이천시 남부권은 북부권에 비해 교통과 산업 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제공항 유치를 시점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 영종도와 가덕도 신공항의 배후도시인 가덕 에어시티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을 중심으로 공항 및 산업·물류 지원을 위한 업무, 숙박, 관광 및 복합 리조트 등 다양한 휴양·레저 중심의 배후도시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천시 남부권이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의 균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끝으로,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한 물류 허브 구축입니다. 부벌역을 필두로 대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동쪽으로는 동해선을 통해 러시아, 시베리아, 북유럽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경의선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여 서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이천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물류 허브로 도약 가능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남부권 균형발전 효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2. 17.

서학원 의원

다. 특히,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라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게 되면 물류 효율의 극대화와 운송 비용의 절감, 경쟁력 향상,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 인재 유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SK하이닉스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이천시는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공항은 단순하게 여객기를 타기 위한 터미널의 개념을 넘어 첨단산업 및 광역 교통, 복합 물류를 합친 대규모의 공항 경제권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이천시 발전을 막았던 고질적인 중첩 규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공항 유치를 위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학고 유치 때와는 다르게 이천시 집행부는 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천시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가 날아가지 않도록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시장님의 결단과 대책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2. 27.]
7급 이하(6급 무보직 포함) 일반직 국별 인사,
변호사 채용, 4개면 주민팀 폐지
이천시 인사 운영 문제점 많아_서학원 의원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1.]
과학고 설립 · 운영에 대한 이천시 투입 비용 공개
지역학생 우선 선발권 보장
지역학생 신입생 50% 선발_서학원 의원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4. 29.]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실효성
시민과 기업인에게
올바르게 홍보해야_서학원 의원





공유재산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기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확대 건의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시민중심 민생의회를 대표하는 박명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시의원 박준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확대를 건의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은 재정적 가치로도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따라 지방세외 수입이 들쭉날쭉한 우리 시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기반이므로 앞으로 더욱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필요에 따라 현금화하여 세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전에 확보한 부동산 재산은 공공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 기금 조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주민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원적 미래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2019년 드론을 활용해 시 소유의 토지 1만 7,632필지 1,291만㎡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2024년 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2만 2,377곳 15,989,789㎡로 토지, 건물, 구거, 도로, 하천 등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 있거나 협소하여 활용가치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총 2만 18필지 중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379필지 724,282㎡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현금화할 재산도 부족하고, 대부분으로 거둬들이는 세입 또한 2023년 기준 약 1억 4천만원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부실로 발생한 문제점에는 인허가 관련 불법 행위, 공유재산 활용 관련 지자체 간의 갈등, 국유지 활용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인허가 대행업체가 사유지에 대해 협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공무원과 민원인을 속이고 사용 인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천시는 직권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모범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총괄팀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현황 분석 및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방식을 개별 부서에서 총괄 부서로 이관하기도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통해 가용자원을 발굴하고, 토지 이용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및 행정재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 소유 재산을 시각화하여 대시보드에 게시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하 의원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취득, 처분, 시용 및 대부하기로 단순히 나뉘진 현행을 보완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로드맵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처분, 대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온라인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하고,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감독 기능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시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 조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재산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련 조사나 분석, 매입·매각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건의합니다.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 수탁기관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을 거쳐 집단화하는 등 장래를 대비한 공유재산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공유재산을 통해 이천시민분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재정 건전성과 자산 가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이천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시 재정 안정화 위해 세입 구조 다변화 필요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박노희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된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실행 되어, 이천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가 직면한 재정의 불안정성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요?

지방자치는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적 자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2015년부터 SK하이닉스로부터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며 풍부한 세수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반도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2024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우리 시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SK하이닉스의 경기 변동이 곧 이천시 재정의 불안정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 변화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 변화와 관세 조정, 보조금 정책 등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천시의 세입도 더욱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이제 우리는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천시 재정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세입 구조 다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세수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 외에도 물류,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이천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밀접한 '소부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산업 기반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주세의 지방세 이관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 이양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천시는 더 이상 특정 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 흔들리는 재정 구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박노희 의원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세수 확보 역시 우리 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이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원 발굴과 산업 다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천시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시만의 차별화된 도시브랜드의 방향성 설정해야 서희 선생을 이천시의 도시 인물 브랜드로 선정할 것을 제안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이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차별화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도전의 시작은 도시브랜드 정립을 통해 이천시의 도시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이천시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시만의 특성으로 차별화는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차원의 브랜드를 설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천시는 캐릭터와 CI(Corporate Identity)는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도시브랜드는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천시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타당성과 이천시만의 차별화된 도시브랜드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쌀과 도자기의 도시 이천

반도체의 도시 이천

첨단과학 교육의 도시 이천

이제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시의 정신을 표현하는 생명' 이어야 합니다.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도시의 영혼을 표현하는 예술'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소통과 평화의 가치로 세계 역사상 가장 유능한

외교관 서희 선생을 이천시의 도시 인물 브랜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의 담판을 통해 외교적 승리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서희 선생의 소중한 유산을 바탕으로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 기념을 넘어서 서희의 사상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고 서희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 서희의 영혼이 깃든 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천시의 도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이천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서희 선생의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서희 선생의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 공감과 연대를 통해 구심점과 자긍심이 되어 이천시민의 진정한 정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희 선생의 삶과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전 생애를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매체를 활용한 교육, 문화, 사회적인 접근을 통해 이천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 서희 선생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서희 선생의 업적과 미래를 보는 안목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서희의 날'을 제정하여 업적과 의의를 기리고 인물 콘텐츠를 활용하여 행정명이나 공공 시설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예술과 문화제를 확장하여 도시 곳곳에 서희 선생의 가치가 빛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송옥란 의원

끝으로 서희국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서희 선생의 평화정신을 선양해야 합니다. 교통의 요지이며 수도권 입지의 접근 특성을 활용해 외교관 숙소와 회의 장소를 제공하고, 서희학을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와 포럼 등 다양한 국내외적 행사 개최를 통해 이천시를 국제적 외교 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세수 확보는 물론 이천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서희 선생의 소통과 평화정신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생명의 도시로 차별화되고 영혼이 담긴 뿌리 깊은 예술의 도시로 풍요롭게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천시는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핵심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서희 선생의 소중한 유산을 도시브랜딩하여 차별화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춘 이천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천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이천시의 미래도시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은 문화 공간 조성을 넘어 소통하고 성장하며,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에 대한 투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현입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영상 장비 대여, 영상 편집실 이용 등 창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미디어가 주로 정보를 전달하던 일방향적인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양방향 소통의 시대로 개인 스스로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5명은 하루 2시간가량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초등학생 장래 희망 상위권에는 유튜브가 빠지지 않고 있을 만큼 현대사회에 들어 미디어는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일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전문적인 미디어의 교육과 활용에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10대 청소년의 경우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기 쉬워 올바른 미디어 문화 정착이



 김재현 의원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앞으로의 미디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진로로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소셜 미디어 활용 교육, 디지털 금융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 확대의 중심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 판매 및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촬영 및 편집 교육 등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라이브커머스까지 연계한다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우리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청소년과 고령층이 함께 지역 관련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더

욱 절실히 느끼고, 타 시군 미디어센터의 운영 현황 및 특화 사업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안성과 성남의 미디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안성 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 소외계층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 상영과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제작한 라디오 방송을 점자책으로 발간하는 등,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남 미디어센터에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 미디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미디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은 우리 이천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 미디어센터는 이미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미디어센터 또한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미디어 문화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희 시장님!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은 문화 공간 조성을 넘어 이천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민 모두가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성장하며,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투입해 연구용역 했지만, 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많아 후속 연구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공개 필요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사업은 시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사업이 완료된 후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천시에서 추진했던 용역사업을 살펴보고,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에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이천시 푸드플랜 기본사업 계획 수립 용역' 과 2019년에 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천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니다. 총 2억 3,7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용역을 바탕으로 그 후 어떤 추진이 이루어졌습니까?

특히, 율현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사업이 단순히 최종 보고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에 실시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 에서도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화물공영차고지 위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율현동과 마장면의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분석과 시설 규모 및 배치 구상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화물공영차고지의 위치가 몇 차례 변경되었고, 결국 용역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완료된 다수의 용역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 진행되거나 과도한 예산이 배정되고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보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용역사업 수행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용역비의 과다 지출입니다. 일부 용역사업에서는 예산을 낭비하거나,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사업의 결과가 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의 필요와 맞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3. 21.

김재국 의원

세 번째는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용역이 끝난 후 연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으면 후속 연구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필요한 조정이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천시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예산 관리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의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개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해 결과물의 공개와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4. 18.]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 필요성_김재국 의원



특별한 만남

- ♥ 자매도시 안동에 산불 피해 성금 기탁
- ♥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단원 공개 모집



자매도시 안동에 산불 피해 성금 기탁

봄 영농철을 앞두고 안동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안동시도 산림 2만 6,700ha와 가옥 등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4월 9일 안동시의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이번 성금은 안동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재해 구호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지역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1999년 1월 25일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축제 및 특산품 홍보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1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단원 공개 모집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1기 의정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해 4월 24일, 13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은 시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제도개선 사항과 시민 불편 사항 제보·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의회 방청과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 의정 발전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며,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위촉된 단원은 상·하반기 개최되는 정기회의 참석, 제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요구 등이 가능하며 우수단원으로 선정되면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안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이천시의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의정모니터단은 지난해 5월, 임진모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발안이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요건

• 청구권자

-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 주민조례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

-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 2025년: 2,730명

• 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발안 진행절차

1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 → 의회 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의회 의장 → 청구인

3

서명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 → 의회 의장
- 제출: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공표: 5일 이내

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10일

7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의회 의장

8

지방의회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입법예고 미실시

하반기 회기 일정

구분	회 차	회 기	주 요 안 건	비 고 (예 정)
임시회	제255회	7. 17.(목) ~ 7. 23.(수) 【7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 추경예산안(제출 시) 	
임시회	제256회	9. 3.(수) ~ 9. 11.(목) 【9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 추경예산안(제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회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 : 2025. 9. 19.(금) ~ 9. 21.(일)
임시회	제257회	10. 14.(목) ~ 10. 21.(화) 【8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등 연휴 : 10. 3.(금)~10. 9.(목) •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 : 2025. 10. 22.(수)~10. 26.(일)
정례회	제258회	12. 1.(월) ~ 12.23.(화) 【2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 시정질문(시정답변) ○ 추경예산안(제출 시)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제출 : 11. 21일한 • 예산안 의결 : 12. 21일한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청/견학 문의 및 신청

Tel 031) 644-2537

Fax 031) 631-2981

E-mail aksskffo@korea.kr

※ 본회의장의 방청석 규모(20석)가 협소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 마감합니다.

방청견학 신청확인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이천시의회) Tel 031)644-2532 Fax 031)631-2980
<https://council.icheon.go.kr>